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승탁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Baby Boomers on Practical Well-Being Focused on the Modul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Identity

Seoung-Tag Park
Division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이용중인 286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t=6.893, p<.05$), 참여($t=5.157, p<.05$), 네트워크($t=8.093, p<.05$), 규범 및 호혜성($t=4.787, p<.05$)은 실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에 따른 조절효과($t=2.023,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 속에서 쌓은 사회적 유대와 가족 친척간의 돈독한 신뢰관계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심리와 작용하여 실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관계가 높고 심리적 정체성이 상위일수록 실제적 안녕감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서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활동 축소 등으로 심리적 정체성이 낮아질 경우 실제적 안녕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이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단체 활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다수는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부족으로 국가의 제도적 혜택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국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identity and practical wellbeing for the Korean baby boom generation. To achieve this, an empirical survey was carried out on baby boomers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and cultural centers living in D City.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rust ($t=6.893, p<.05$), participation ($t=5.157, p<.05$), network ($t=8.093, p<.05$), and norm and reciprocity ($t=4.787, p<.05$), as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for baby boom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ractical wellbeing. Psychological identity was moderated ($t=2.023, p<.05$) in the effect of trust on practical wellbeing, adopting the hypothesis. This means that the social ties and the strong trust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ich built up amid rapid economic growth, work with positive expectations of social capital and have a major effect on practical wellbeing. Moreover, practical wellbeing also rated high, along with the high trust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identity. Consequently, various exchange programs and group and volunteer activity programs for baby boomers should be established to decrease their psychological identity due to the loss of social roles. Moreover, the decline of activities at a time of retirement can slow practical wellbeing.

Keywords : Baby Boom Generation,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Identity, Practical Wellbeing, Social Roles

*Corresponding Author : Seoung-Tag Park(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email: stonebear1004@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December 28,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18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1].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미쳐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은퇴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족에 따른 경제적 불안으로 재취업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면서 이 세대의 정체성과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2].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730만 명이 태어난 세대로 고령화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비율은 더욱 급증하여, 2026년에는 고령인구의 20% 이상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세대의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

베이비 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로 고학력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자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까지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인 세대이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정책과 시책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제발전으로 인한 성장에 혜택을 받은 세대였지만 1990년대 후반 IMF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이기도 하다[4].

이 세대는 가난 극복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매진했으며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치중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해 은퇴 이후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시대적 아픔을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네트워크 참여와, 사회적 소통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018년 46.7%에서 2019년 51.0%로 증가했으며, 세대 간 갈등이 약간 심하다는 비율이 49.7%로,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4.4%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노인과 장년층 모두 세대 간 소통의 차이로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관련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절대적 빈곤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경제 발전기에 가장 헌신한 베이비붐 세대는 사

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기를 맞아 준비 없는 노후로 낮은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6]. 더욱이 1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 세대로서 심리적 불안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모 및 호혜성을 통한 교환이 활발할수록 실제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정체성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이들 상호인과관계를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세대간 갈등의 특징

세대(generation)는 동년배 집단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 유사한 성장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를 말한다[7].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종전 이후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공통된 사회적 경향의 붐을 이루던 시기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730만 명의 유아가 출생했는데 이 당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타 시대보다 급증한 세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절대 빈곤의 유년 시절을 경험하였으며, 권위주의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한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였다. 이들은 고도성장의 혜택과 1997년 외환위기의 경제적 쇠퇴를 겪으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전환기적 특성을 가진다[8].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일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부모부양과 자녀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았다.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 고도의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혜택과 이에 따른 교육 기회를 누린 세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낡은 세대로서, 노인과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로 묘사되기도 한다[9].

즉, 이들 세대의 높은 사회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맞이하여 세대 간 갈등을 겪는 낮은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금제도의 미비로,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3%가 가장 중요한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듯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노후준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소외되어 왔다[10]. 이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각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이 현재의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크며,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예측 불안정으로 갈등 요인이 되어 이 같은 부작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생산적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큰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정년퇴직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각 세대가 차지해야 할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일자리의 진입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일자리 퇴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늘어 갈등이 더욱 고조된 점이다[11].

셋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12,13].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이 존경을 받아왔다. 효 사상에 근거한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문화로서 가장의 권위 아래 집안의 모든 일이 연장자에게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지만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에 따라 심리적 정체감과 실제적 안녕감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특정하여 이들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사회적 자본의 구성과 안녕감에의 영향요인

사회적 자본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되는 주제로 기본 명제는 연결망으로서의 사회네트워크와 가치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활발히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지역사회와 연관된다[14,15]. 이렇듯 사회적 자본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자본을 조직, 가령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들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존재와 활동에 초점을 둔다[16].

즉 사회적 자본은 예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원이다[17]. 사회적 자본의 투자는 실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형태의 가치가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투자에 따라 심리적 기저로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실천하는 상호호혜적인 참여 경제방식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8].

사회적 자본이 적게는 가족, 넓게는 지역사회, 더 크게는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형성된다면 남녀 간의 사회적 자본 역시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에서 있어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15].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은 네트워크, 신뢰 및 호혜성, 규범으로 이는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인이다[19].

본 연구에서는 신뢰, 참여 및 규범 및 호혜성을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인으로 간주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3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

심리적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심리발달에서 공통적인 심리적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출생동시집단의 심리적 속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20].

베이비붐 세대가 갖는 심리적 정체성은 노인의 불안과 우울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게하며,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심리적 정체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소외와 역할 상실의 활동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Lee[21]의 베이비붐 세대 노후 준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 You[22]의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 연구, Kang[23]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에서 연관성을 지지받고 있다.

이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노후 관련 심리적 정체성과의 관련 연구가 이뤄지는 이유는 세대 간 특징과 맥락을 함께 한 긴 세대로서,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증가가 관계의 생성, 관계의 확장 효과를 불러와 개인의 실제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4], 결속형 및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과시적 자기노출이 심리적 정체성을 조절한다[25].

이와 관련하여 You, Lee & Choi[26]는 서울시민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정체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Park 과 Lee[27]는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정체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다. Chang 과 Kwon[28] 또한 사회적 자본의 편익과 손실이 나이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심리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먼저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 및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러한 특성이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

또한 Hwang, Jeong & Kim[30]은 나이에 따른 차이는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정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두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실제적 안녕감에 따른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실제적 안녕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노후 사회적 자본에 따른 실제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특성, 삶의 방식, 환경, 신념 요인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붐세대는 Hwang, Jeong & Kim[30]의 세대구분에 의한 1955~1963년의 사회적 긴 세대로 구분하고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Jeong 과 Seong[32], 그리고 Sung[33]이 사용한 사회적 신뢰성, 참여도, 규범 및 호혜성과 네트워크의 정도로 보고, 이들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은 Lim[34]이 사용한 선행 요인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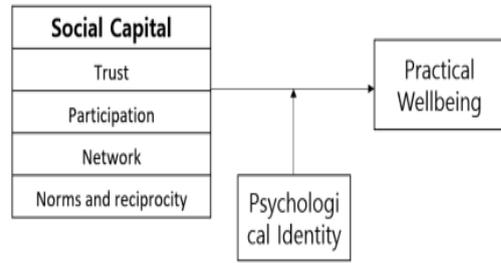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위 연구모형에 따라 본 실증조사 후 중점 검증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참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규범 및 호혜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3.3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5-60대 베이비붐 세대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동사무소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노인 회관을 이용하는 세대를 사전 문화센터와 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연령을 확인한 후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후 본 분석에 총 286매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4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와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easured Variables and Item Composition

Variables	Items	Reference	Measurement Method
Trust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likert 5-scale
	Norms and reciprocity		
	27	[31,32]	
Network			
Practical Wellbeing		5	[33]
Psychological Identity		3	
General characteristics	Age, Gender, Health, Academic background, Job, Monthly income		nominal scale
	6		
계		41	

3.4.1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으로 구분된다. Jeong & Seong[32]이 사용한 사회적 자본 척도를 활용하여 Sung[33]이 구성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는 먼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낯선 사람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고 11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참여는 사회적 참여로 지역사회행사, 반사회,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자선봉사모임이나 단체, 종교단체, 친목취미모임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7문항), 크론바흐 알파 값은 .719이었다.

네트워크는 현금, 선물 등을 나누는 자녀, 형제자매, 자녀와의 접촉빈도, 음식을 나누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은 .758이었다.

규범 및 호혜성은 교통질서, 금연 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준수하는 정도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도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4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크론바흐 알파 값은 .617이었다.

3.4.2 실제적 안녕감

실제적 안녕감은 전반적인 삶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Lim[34]이 사용한 실제적 안녕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하여 5개 문항의 값을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한다. 실제적 안녕감 척도는 별도의 하위요인 없이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4.3 심리적 정체성

심리적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소회와 역할 상실의 활동축소로 정의하고 이는 Lim[34]이 사용한 실제적 안녕감 척도를 응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총 문항은 3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 점수가 낮을 때 활동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코딩하였다.

3.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5.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였으며, 대상은 D지역의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동사무소, 문화센터, 교회, 등에서 본 연구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에 응한 분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총 295부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고 불성실한 질문지를 9부를 제외한 총 2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5.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구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실제적 안녕감, 심리적 정체성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분석과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
Age	50 to 59	126	44.1
	60 to 69	160	55.9
Gender	Male	107	37.4
	Female	179	62.6
Health	Not very good	16	5.6
	Not good	49	17.1
	Average	121	42.3
	Good	77	26.9
	Very good	23	8.0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dropout or less	44	15.4
	middle School graduation	85	29.7
	high school graduation	117	40.9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40	13.9
Job	Sales job	19	6.6
	Business administration	58	20.3
	Housewife	46	16.1
	Production manager	62	21.7
	Profession	21	7.3
	White collar	12	4.2
	Service	33	11.5
	Etc	35	12.2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28	9.8
	Over 1 million won to less than 2 million won	65	22.7
	Over 2 million won to less than 3 million won	110	38.4
	Over 3 million won to less than 4 million won	63	22.0
	Over 4 million won~	20	7.0
total		286	100

Table 2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별로는 50대가 126명(44.1%), 60대 160명(55.9%)로 나타났다으며, 성별로는 남자 107명(37.4%), 여자 179명(62.6%)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매우 양호하다 23명(8.0%), 양호하다 77명(26.9%), 보통이다 121명(42.3%), 양호하지 않다 49명(17.1%), 매우 양호하지 않다 16명(5.6%)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중학교 중퇴 이하 44명(15.4%), 중학교 졸업 85명(29.7%), 고등학교 졸업

117명(40.9%), 대학교 졸업 이상 40명(13.9%)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관리직 62명(21.7%), 경영 관리직 58명(20.3%), 전업주부 46명(16.1%), 서비스직 33명(11.5%), 전문가 21명(7.3%), 판매직 19명(6.6%), 사무직 12명(4.2%), 기타 35명(12.2%)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10명(38.4%),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65명(22.7%),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63명(22.0%), 100만원 미만 28명(9.8%), 400만 원 이상 20명(7.0%)순으로 나타났다.

4.2 척도 분석

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Table 3.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of Scale

Classification		Items	Cronbach's α	k-m-o
Psychological Identity		5	.880	.902
Practical Wellbeing		10	.667	.855
Social Capital	Trust	11~7	.880	.886
	Participation	7~5	.719	.753
	Network	5	.758	.790
	Norms and reciprocity	4	.617	.73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문항에 대한 타당성에서 실제적 안녕감, 심리적 정체성, 사회적 자본차이의 하위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모두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KMO값 0.7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신뢰도 검사에서는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를 Cronbach's α 계수로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사회과학분야에서 신뢰도 인정의 허용기준은 0.6이상이기 때문에 참여 변수의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낮은 요인 적재치의 문항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삭제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4.3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증 결과 가설1-1은 '사회적 자본의 신뢰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회귀계수 0.291,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Classification	B	S.E	β	t	p
constant	-0.128	.112		-1.144	.253
Trust	0.291***	0.042	0.302	6.893	0.000
Participation	0.239***	0.046	0.250	5.157	0.000
Network	0.287***	0.035	0.329	8.093	0.000
Norms and reciprocity	0.196***	0.041	0.164	4.787	0.000
N	286				
adj-R2	0.774				
F	244.63***				

t=6.893,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2는 '사회적 자본의 참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회귀계수 0.239, t=5.157,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3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회귀계수 0.287, t=8.093,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4는 '사회적 자본의 규범 및 호혜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회귀계수 0.196, t=4.787,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4.4 조절 회귀 분석

가설2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에 따른 조절효과는 신뢰*심리적 정체성 상호작용의 계수 0.082, t=2.023, p<.05로 심리적 정체성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고, 참여*심리적 정체성, 네트워크*심리적 정체성, 규범호혜*심리적 정체성 상호작용효과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과 심리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28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t=6.893, p<.05), 참여(t=5.157, p<.05), 네트워크(t=8.093, p<.05), 규범 및 호혜성(t=4.787, p<.05)은 실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t=2.023, p<.05)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5. Result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Trust	0.291***	0.042	0.302	0.288***	0.043	0.299	0.034	0.138	0.035
Participation	0.239***	0.046	0.250	0.240***	0.046	0.251	0.153	0.153	0.161
Network	0.287***	0.035	0.329	0.287***	0.035	0.330	0.391**	0.123	0.449
Norms and reciprocity	0.196***	0.041	0.164	0.189***	0.043	0.158	0.219	0.117	0.183
PI				0.010	0.017	0.018	-0.155	0.088	-0.280
Trust*PI							0.082*	0.040	0.493
Participation*PI							0.028	0.044	0.176
Network*PI							-0.031	0.036	-0.181
Norms and reciprocity*PI							-0.010	0.037	-0.074
N	286			286			286		
adj-R2	0.774			0.773			0.777		
F	244.63***			195.30***			111.29***		

***p< 0.001, **p< 0.01, *p< 0.05

Psychological Identity= PI

즉, 이들 세대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경제기여와 발전, 다양한 규모조성을 통한 호혜와 이들 세대의 공헌에 따른 신뢰관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대별 느끼는 사회적 자본의 질에 따라 실제적 안녕감이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발전과정에서 산업역군의 일환으로 기여하며 쌓은 사회적 유대와 가족 친척관계의 신뢰관계가 실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의 신뢰관계가 높고 심리적 정체성이 긍정적인수록 실제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관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년기의 퇴직으로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활동 축소 등으로 심리적 정체성이 나타나고 이 같은 정체성이 결합될 때 부정적인 조절력으로 실제적 안녕감도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단체 활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의 다각성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녕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모보양과 자식 교육으로 자신들은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부족으로 국가의 제도적 혜택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국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세대와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해 신뢰감을 높여 노년기의 실제적 안녕감을 높일 때 세계 1위라는 불명예의 자살률을 낮춤으로서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KOSTAT, 2018 Korea's social indicators, Daejeon : Kostat, 2019.

[2] Y. G. Lee, S. I.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o the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Social Activitie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20, no. 2, pp. 151-180, 2016. G704-000863.2016.20.2.006

[3] Y. R. Lee, S. J. Lee, "Factors Influencing the Asset and the Income Poverty of the Elderly: Focusing on 'Baby Boomers' and 'Liberation and Korean War Gener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7, no. 2, pp. 111-157, 2018.

[4] D. H. Cho, B. Choi, H. C. Jeong, Job Characteristics and Labour Policy Implications for Seoul, Seoul : Seoul Institute, 2015.

I410-ECN-0101-2017-359-001379145

[5]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Seoul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6] H. M. Kim, D. H. Kim,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the Quality of Life by Baby Boom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4, no. 3, pp. 89-100, 2015.
DOI : <https://doi.org/10.15870/isers.2015.12.54.4.89>

[7] E. H. Lee, K. J. Kim, S. R. Lee, H. J. You, K. W. Cha, Y. A. Lee, & J. Y. Le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between the Generation,"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11, no. 2, pp. 197-227, 2015.
DOI : 10.15790/cope.2015.11.2.197

[8] S. G. Lee, "Factors Affecting Baby Boomer's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73-86, 2014.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4.12.10.73>

[9] H. S. Jeong, S. W. Kim, S. H. An, "Generation and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63, pp. 337-369, 2014.
DOI : <https://doi.org/10.21194/kgsw..63.201403.337>

[10] KOSTAT, 2017 Social Survey Results, Daejeon : KOSTAT, 2017.

[11] G. S. Park, "Rethinking Generational Conflict in Contemporary Korea: The Search for Economic Dimensions,"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vol. 12, no. 1, pp. 3-25, 2011.
DOI : <https://doi.org/10.22862/kjsr.2011.12.1.001>

[12] H. J. You,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the Caregiving Norms and Its Relations with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Conflict,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9, no. 1, pp. 107-130, 2000.

[13] S. H. Nam,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tegration in family,"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0, no. 2, pp.1-15, 2004.
G704-000654.2004.10.2.005

[14] D. W. Ki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residential life satisfaction : a case of Dangiin city*, Ph.D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2013.

[15] H. B. Park, H. C.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on Social Status, Happiness, and Political Efficacy: Cas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Conditions of Public Deliber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19, no. 3, pp. 871-902, 2007.
G704-000253.2007.19.3.009

[16] J. H. Ki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Trajectories in Later Life,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vol. 67, no. 3, pp. 181-201, 2015.
DOI : <https://doi.org/10.20970/kasw.2015.67.3.008>

- [17] Lin, Nan.,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vol. 29, no. 6, pp. 785-796, 2000.
DOI : <https://doi.org/10.2307/2654086>
- [18] J. H. Kim, "A Study of Social Capital for Sustainable Fishing community - Focused on the Case of Soraepogu fishing village Association,"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vol. 1, no. 31, pp. 53-79, 2019.
DOI : <https://doi.org/10.46331/jis.2019.08.31.53>
- [19] J. K. Cha, T. G. Ryu,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between Social Group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n Society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82, pp. 237-264, 2017.
G704-001454.2017.22.1.015
- [20] W. M. Hwang, D. H. Kim, "The Study on Korean's lifestyles and its' Generational Identity: A Psychological Model of 'Generational Differences'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8, no. 2, pp. 31-47, 2004.
G704-000424.2004.18.2.003
- [21] Y. J. Lee, "Preparation Characterization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5, pp. 253-261, 2013.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3.13.05.253>
- [22] Y. S. You, "Factors Affecting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for Old A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738-747, 2013.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738>
- [23] I. Kang,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Among the Baby Boom Cohor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6, no. 9, pp. 460-472, 2016.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6.16.09.460>
- [24] M. O. Kwon, G. T. Le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Online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nline Network Servi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8, no. 5, pp. 1485-1503, 2015.
G704-000789.2015.28.5.001
- [25] R. N. Byun, Y. S. Kim, T. S. Hyun,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 Retirees in Korea and Japa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4, pp. 315-344, 2011.
DOI : <https://doi.org/10.15709/hswr.2011.31.4.315>
- [26] S. S. You, J. G. Lee, Y. J. Choi, "The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Facebook: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elf-Esteem by Self-Disclosure,"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18, no. 2, pp. 117-150, 2017.
DOI : <https://doi.org/10.21074/kilcap.2017.18.2.117>
- [27] H. B. Park, H. C. Lee,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Organizational Evolution in Korean Local Enterpris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17, no. 3, pp. 709-728, 2005.
G704-000253.2005.17.3.002
- [28] Y. J. Chang, Y. J. Kwon,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family, in school and subjective well-being adap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2, no. 2, pp. 75-87, 2017.
DOI : <https://doi.org/10.21097/ksw.2017.05.12.2.75>
- [29] M. R.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 Comparison by Age and Gend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1, pp. 145-161, 2012.
G704-000573.2012.32.1.018
- [30] M. Y. Hwang, S. D. Jeong, J. H. Kim, "The Relationship Among Ageism, Self-Perception of Physiological & Psycho-social Aging, and Depressive Mood: Comparison between Male Babyboomer, Young-Old & Old-Old Generation Group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7, no. 1, pp. 65-103, 2018.
DOI : <https://doi.org/10.22257/kjp.2018.03.37.1.65>
- [31] H. J. Choi, M. J. A. Kim, J. Y. Lee, M. J. B. Lee, "A Study on the Retirement Life Span of Korean Households,"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 5, no. 4, pp. 47-71, 2012.
- [32] S. D. Jeong, M. H. Seo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4, pp. 249-272, 2012.
DOI : <https://doi.org/10.15709/hswr.2012.32.4.249>
- [33] G. W. Sung, *The Effects of Aging Anxiety and Ego Integrity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 mediating model of social capital*,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6.
- [34] D. H. Lim, *A Study on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Death Anxiety among the Korean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act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Nambu University, 2014.

박 승 탁(Seoung-Tag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인복지전공 (문학박사)
- 2005년 2월 :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전공 (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영남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장애인 노인, 기독교 사회복지